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 출장기간 : 2024.5.15.(수)~5.18.(토)/3박4일
- 출장지역 :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시
- 출 장 자 : 이동호의장, 김효섭 정책지원관
- 출장내용
 - 동해항의 북방물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에 대해 강원시군의회의회장단과 공감대 형성
 - 러시아와 교류확대를 통한 우호협력 초석 마련
 - 국외항로 활성화 방안 강구



동 해 시 의 회

-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 -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I 연수 개요

- 강원특별자치도의 환동해 북방경제권 거점 도약·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 우호협력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무국외 출장
- 기 간 : 2024. 5. 15.(수) ~ 5. 18.(토) / 3박 4일
- 출장국가 :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 출 장 자 : 이동호 의장, 김효섭 정책지원관
※ 강원도 총 출장자는 30명 (시군의회장 12명, 직원 18명)
- 출장내용
 - 블라디보스토크시의회 방문 및 의장과의 간담회
 - 동해발 카페리 선박 시설 견학, 블라디보스토크 주요 명소 견학
- 소요예산 : 1인 1,500천원
 - 의장 : 협의회 예산집행 / 직원 : 시·군의회 예산집행

II 연수 주요 일정

날 짜	지 역	내 용	비 고
5. 15.(수)	동 해	동해항 집결 및 출국, 동해↔블라디보스토크 카페리 선박 시설견학	
5. 16.(목)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시의회 방문 및 의장과의 간담회	
5. 17.(금)	블라디보스토크	항일 독립운동 기념시설 및 주요 명소 견학, 출장자료 정리 및 출국	
5. 18.(토)	동 해	입국 및 출장 종료·해산	

Ⅲ

출장자 명단

번호	소속	성명	직급(위)
12개 시군 의회 총 30명(의장 12명, 직원 18명)			
1	동해시의회	이동호	의장
2		김효섭	주무관
3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장
4		서의범	주무관
5	횡성군의회	김영숙	의장
6		이다혜	주무관
7	영월군의회	심재섭	의장
8		이수민	주무관
9	평창군의회	심현정	의장
10		이소명	주무관
11	정선군의회	전영기	의장
12		유은하	수석전문위원
13		전제헌	의정팀장
14		전미숙	의사팀장
15	철원군의회	박기준	의장
16		이민형	행정7급
17	화천군의회	노이엽	의장
18		길한석	주무관
19	양구군의회	조돈준	의장
20		문정호	주무관
21	인제군의회	이춘만	의장
22		지상원	사무과장
23		김동림	주무관
24	고성군의회	김일용	의장
25		이민우	소통팀장
26		백락형	주무관
27		윤재철	주무관
28		이용찬	주무관
29	양양군의회	오세만	의장
30		이창호	주무관

IV 출장국가와 도시 현황

□ 출장국가 현황

구 분	대한민국	러시아	비 고
위 치	아시아대륙 동부	유라시아대륙	
인 구	51,751,065명	143,957,079명	
수 도	서울	모스크바	
면 적	100,431km ²	17,090,000km ²	
공식명칭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기 후	온대기후	대륙기후	
민족구성	한민족	러시아인	
언 어	한국어	러시아어	
정부형태	대통령제	연방제(대통령)	
의회형태	다당제, 단원제	다당제, 상·하 양원제	
화 폐	원(Won)	루블(Ruble)	
1인당 GDP	32,409 \$	13,005 \$	
인구밀도	514명/km ²	9명/km ²	

□ 블라디보스토크 현황

○ 위 치 : 러시아 프리모리예 변경주(연해주)

○ 면 적 : 331.2km²

○ 인 구 : 61만 명

○ 지역 특성

- 극동지역 균형이자 항구도시로 성장하여 해상교통 및 무역 발전
- 극동지역과 연해주의 정치·경제 중심지
- 환동해권 산업·물류·관광 연계와 교류의 거점 도시

V 출장 주요 활동

① 동해항 : 강원도 해운 물류·수출의 거점 항만

: 동해시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관계자로부터 현황 등 청취

- 강원도 최대 무역항으로 시멘트, 유연탄 등 원료 지향적 수출입항
 - 1979년 2월 8일 개항하였으며, 천연항이 아닌 인공 굴입식 항만으로 주변의 시멘트(쌍용 E&C, 삼표시멘트 등), 금속제철(DB메탈) 산업에 필요한 원료와 제품 운송
 - 하역 처리 능력은 연간 2,800만톤인데, 2022년 2,900만톤 처리함으로써, 전국 31개 무역항 중 9위를 차지
 - 국내 석회석 수요 전량과 시멘트 생산량 26.9%를 반출하는 국가기반 산업의 원자재 공급항으로서의 기능 수행
 - 석회석 1천만톤(32.9%), 시멘트 819만톤(26.9%), 석탄 698만톤(23%) 순이며, 석회석은 포항, 광양, 당진 등 국내 제철소 원료로도 사용



동해항 : 환동해 물류 전진기지

- 총 16척의 배가 동시 접안(최대 5만톤) 가능하며, 부두 길이는 총 5,227m, 191,000㎡의 야적장 보유

○ 환동해, 한-러 해운 · 물류네트워크의 전진기지

-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모든 항공편의 운항이 중단됨으로써, 동해-블라디보스토크를 주 1회 운항하는 카페리(두원상선, 이스턴 드림호)는 한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유일한 여객 운송노선임.
- 특히, 속초-블라디보스토크 구간을 주 2회 운항하던 카페리 노선이 2024년부터 전면 운항 중단됨으로써, 동해-블라디보스토크 해운은 한-러 교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됨.
- 2024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해항을 중심으로 한 한-러 교역과 물동량은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부침을 겪고 있으나, 여객 운송의 측면에서는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음. 승객은 한국에서 일하는 러시아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인 관광객은 상대적으로 소수임.



이스턴 드림호, 환동해(한-러-일) 물류 선봉

- 향후 두원상선은 동해항을 모항으로 한국-러시아-일본(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항)을 주 1회 운항할 예정이므로, 이스턴 드림호는 명실상부한 환동해 교역과 물류의 선봉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2 블라디보스토크시의회 방문 · 면담

- 5.16(목), 대표단은 블라디보스토크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현황을 청취하고, 양 지역 간 경제 · 문화 · 인적 교류와 협력 증진에 대해 협의
 - 블라디보스토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드레이 브릭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하여 연수단과 간단한 행사 개최
 - 브릭 의장은 환동해물류 전진기지인 동해시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
 - 이동호 의장은 현재 양국 간 유일한 여객운송망인 카페리 운항이 향후에도 차질없이 잘 진행되도록 두 도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고 하면서, 경제와 문화 및 인적 교류 증진 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
 - 아울러, 이동호 의장은 블라디보스토크시가 「2024년 러시아 청년수도」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오는 6월 24일(월)에 개최 예정인 청년수도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원함.



블라디보스토크시의회 의장 및 관계자 면담

2024 러시아 청년 수도

- ◆ 2023년부터 러시아연방 청소년청은 러시아 청년수도 지정 (청년정책)
- ◆ 2024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 선정
 - 포럼, 콘서트, 축제, 스포츠 대회를 비롯해 비즈니스 행사도 개최 계획
 - ※ 23년 러시아 19개 도시가 경합에 참여, 온라인 투표로 청년도시 선정

-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행사에 참석하여 강원도를 비롯한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임.
- 블라디보스토크시의회 본회의장에서의 행사 후 자리를 옮겨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양 지역 간 교류,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눔.



○ 블라디보스토크 인삼 박물관 방문 및 환담

- 이동호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블라디보스토크 인삼박물관을 방문하여 연해주 지역에서의 인삼 재배 현황과 박물관 설립 목적과 활동 등에 대해 청취
- 강원도와 연해주는 동북아, 환동해 협력의 전진기지로서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높으므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양국 교류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교류 증진과 협력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3 강원특별자치도 러시아본부장과의 면담

- 5.16(목),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러시아에 파견한 임형준 러시아본부장 면담, 주요 내용은
 - 러시아를 비롯하여 극동지역의 정치, 경제 정세 청취
 - 러시아 한인(고려인) 이주 160주년 행사 준비 상황 청취 및 협의
 - 러시아 극동지역 물류 현황과 한-러 물류 협력 증진 협의

□ 한-러 관계 (악화)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2.2월 개시) 이후 한-러 관계 악화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對 러시아 경제제재에 한국이 동참하고,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양국 관계가 급속 악화되고 교역량도 감소
 - 한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품목이 2022년 57개에서 2023년 798개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 여건도 악화
 - ※ 21년(273.4억불) 대비 23년(150.5억불) 교역규모는 45% 가량 감소
 - 한국이 러시아에서 절대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였던 자동차, 가전 분야 등에서 중국산이 빠르게 점령
 - 양국 고위급 간 교류와 각종 협의체 개최가 중단되어 양국 관계가 더욱 경색, 악화되었으며, 경제 관계를 해결할 기제도 사라짐.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모스크바를 제외한 지방공항으로의 입국이 제한된 데 이어,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양국 관계의 경색으로 한국과 러시아를 직접 연결하는 (여객) 운송망이 사라짐.
 - 이러한 상황에서 동해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카페리는 한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유일한 물류운송 루트로 작용하고 있음.

□ 러시아 정치-경제 정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년간 지속되면서 (정치적) 혼란과 서방의 (경제) 제재 속에서도 경제성장률은 비교적 선방
- 24.5.7 푸틴 대통령, 6년 임기의 집권 5기 시작
 - 24.3월 87%의 득표율로 당선
 - 24.2월 최대 정적이었던 나발리가 교도소에서 사망하고 반정부 시위도 있었으나, 푸틴 집권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음.
- 2023년 러시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6% 예상
 - 22년 대비 4.2% 증가, 러-우 사태 이전 수준 회복
 - GDP 규모는 전 세계 8위 (미-중-일-독일-인도-영국-프랑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양국의 목표가 상이하여 쉽게 타협점을 찾기 어려우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 우크라이나의 항복과 나토 가입 포기 등이 (전제) 조건
 - 우크라이나 : 점령된 영토 회복, 희생자 문제로 종전 쉽지 않음.
 - ※ 24.3월 전에 실시되었어야 하는 우크라이나 대선이 미실행
 - ※ 미국 대선이 러-우 전쟁의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음.

□ 러시아 루블화 약세, 재정적자 증가 및 경상수지 흑자

- 배럴당 90달러를 넘는 유가, 재정수지 및 상품수지 대폭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지연에 따라 루블화 약세
 - 87.8(23.11.21) → 87.6(24.1.15) → 90.5(24.3.5) → 94.2(24.4.16)
- 2024년 1/4 분기 재정적자 6,070억 루블(약 64억불, GDP의 0.3%)
 - 에너지 부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53.5% 증가했으나, 전쟁 수행으로 여전히 재정지출 많음.

□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물류 상황

- 미국,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 등 추가 제재로 한국 등과의 물류 장애 초래하고, 중국 등과의 교역량 증가
- 미국은 러-우 전쟁 2년에 즈음하여 러시아 산업 전반에 걸친 약 500개 법인과 개인에 대한 제재 패키지 발표
 - 북한이 극동의 보스토치니항을 주요 경로로 러시아에 탄약 등을 지원했다고 밝히면서 보스토치니항 터미널 운영 업체 제재
 - 이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와 부산을 오가는 장금상선의 정기 컨테이너선도 운항 중단
 - 미국이 한-러 간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즈베즈다 조선소를 제재 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삼성중공업도 철수
- 극동지역은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별로 외국인 취업 제한 업종을 지정

□ 러시아 한인(고려인) 이주 160주년

- 재외동포청을 비롯해 다양한 기관들이 행사 개최 준비 중
 - 「세계 고려인·한인 이주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K-문화로 유라시아 평화 협력」 도모를 목표로 진행
 - 다만, 지난 5월 2일 우리 정부가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서의 테러 위험성으로 5개 재외공관을 테러경보 관심에서 경계로 2단계 상향 조치함에 따라, 향후 행사의 개최 여부나 규모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 5.2(목) 정부는 5개 재외공관을 테러경보 관심에서 경계로 2단계 상향
 -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선양 총영사관,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대사관

4 신한촌 방문

- 5.17(금) 일제 강점기 국외 독립운동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였던 곳 중 하나인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기념비)을 방문하고, 독립운동가와 고려인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짐.
 - 19세기 후반 연해주에 한인들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러시아 정부가 한인들의 거주지역으로 설정하면서 형성
 - 신한촌은 일명 개척리라고도 불리는데, 1911년 구 개척리가 사라지고 새롭게 형성
 - 신한촌기념비는 3.1 독립선언 80주년을 맞아 러시아 연해주의 고려인들과 그들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1999년 8월에 한민족연구소가 3개의 큰 기둥과 8개의 작은 돌로 기념비를 만들었음.
 - 기념비에는 ‘민족의 최고 가치는 자주와 독립이며, 이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민족 정신이며...’ 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VI 출장 총평

- 이번 국외연수는 한-러, 환동해 교역의 전진기지로서 강원도와 러시아 극동지역(연해주) 사이의 교류 현황 파악과 협력 증진을 강구하기 위해 시행되었는데,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 2022년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한-러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지방 차원에서는 여전히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파악
 -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와 수출금지품목의 확대, 이에 한국이 동참함에 따라 동해-블라디보스토크 사이의 물동량은 이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사실
 - 기존의 주요 수출품목이었던 자동차, 중장비 등 건설장비 수출금지가 교역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침
 - 그러나, 여전히 민간 교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일하는 러시아 노동자와 고국을 방문하는 고려인 동포 등의 이동이 매우 많음.
 - 다만, 아쉬운 점은 예전에 비해 러시아를 방문하는 한국인이 매우 적게 보이는데, 이는 동해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운항하는 카페리의 운항 일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 애초 이번 국외연수가 지난해에 개설된 속초-블라디보스토크 간 항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획되었는데, 동 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러시아 체류 시간이 매우 짧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하여 극동지역을 관광하기에 좋지 않은 일정도 한몫함.

- 지역 차원의 교류 ·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각도로 노력키로 함.
 - 양국, 양 지역 간 교류 협력에 강원도와 연해주가 주도적으로 나서는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

- 양국 참석자들은 현재 정치 상황으로 인해 양국,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이 주춤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 과거에도 정치, 안보 상황 등으로 인해 한국과 러시아 간 관계가 소원한 상황에서도 강원도와 연해주를 비롯해 지방 차원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상기하며, 양국간 교류 증진을 위해서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공감

○ 현재 한국과 러시아를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물류망인 동해-블라디보스토크 간 항로 활성화를 위해 동해시를 비롯하여 강원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교역을 하는 우리 업체들은 동해-블라디보스토크 물류망마저 붕괴되어 다른 루트를 이용하게 된다면, 물류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전쟁과 국제정세로 인해 초래된 상황에서도 민간 차원의 교역과 교류는 지원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교역규모가 증대하면 운항 일수 확대나 운항 노선 다변화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워 외국인노동자에게 의지하는 산업과 부문이 매우 많은데, 러시아 이주 노동자들이 일정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들의 입출국과 이동에서도 동해-블라디보스토크 해상교통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 /끝/